

## 도보여행 활성화를 위한 탐방로 시설 및 운영 관리 실태 평가 - 강화 나들길을 중심으로 -

신선미·변병설\*\*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Evaluation of Trail Facility and Operation-Management for Walking Tour Revitalization - focus on Ganghwa Nadeul-gil -

Sunmi Shin · Byungseol Byun\*\*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Inha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Received: 16 January 2015, Revised: 23 February 2015, Accepted: 08 April 2015)

#### 요약

본 연구는 도보여행 탐방로의 평가 기준을 도출하고,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보여행 연구를 바탕으로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 지표를 도출하였고, 탐방자원, 탐방시설, 탐방로 운영관리로 구분하였다. 강화 나들길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코스를 선정하였고 자연중심형과 문화중심형 탐방로로 분류하여 강화 나들길의 탐방로 실태를 평가하였다. 자연중심형 탐방로는 탐방로와 연계된 마을의 생활문화자원을 발굴해야 하고, 버스정류장, 슈퍼마켓을 이용하여 편의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중심형 탐방로는 쇠퇴시설을 활용한 경제적 재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용어 : 도보여행, 탐방로, 탐방시설, 운영관리, 강화 나들길

####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deducting the evaluation standard of the walking tour trail and evaluating the real condition of trail facilities and operation & management.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on the walking tour, this study deducted the evaluation index of the trail facilities and administrative control, and divided it into visit resources, visit facilities and trail operation-management. This study selected the course of high use satisfaction among the Ganghwa Nadeul-gil section, and evaluated the real condition of Ganghwa Nadeul-gil trail by classifying the route as nature-oriented trail and culture-oriented trail. In case of nature-oriented trail, it's necessary to discover living culture resources of the village linked with the trail, and to develop amenities using bus stations and supermarket. In case of culture-oriented trail, it's required that economic regeneration plan should be arranged using the declining facilities.

Key words : Walking Tour, Trail, Visit Facilities, Operation & Management, Ganghwa Nadeul-gil

## 1. 서론

중앙정부는 동·서·남해안을 걸어서 돌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해안길'을 선정하였고,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자원의 특성에 맞게 탐방로를 조성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탐방로사업을 통해 전국 도시에 595개의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다<sup>1)</sup>.

제주 올레길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도보여행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도보여행은 2009년 4.6%에서 2015년 1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제주올레길은 2009년 22만명에서 2015년 170만명까지 증

\*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E-mail: byun@inha.ac.kr

1) 전국의 도보여행길 현황을 살펴보면, 탐방로는 총 595개이고, 1,989개 코스, 약 17,671km가 조성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 조성된 탐방로 390개로 10,246km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탐방로는 196개로, 6,559km이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Jeong et al., 2010). 도보탐방로 코스와 도보여행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보탐방로는 유명한 여행지를 따라 획일적인 탐방로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탐방로의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보 탐방로의 탐방자원과 탐방시설, 탐방로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도보여행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보여행 탐방로의 평가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보여행 활성화를 위한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강화나들길로 선정한다. 여행형태 연구에서 여행객들은 교통접근성이 용이한 여행지를 선호하고 재방문한다고 제시되었다. 강화군은 수도권에서 1-2시간 소요되어 여행시간과 거리가 적절하고, 자가용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시민들이 방문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우수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20개의 탐방로 코스가 있어 수도권 시민들은 강화군을 여행지로 선택하고 있다.

내용적 범위는 도보여행 탐방로의 평가 기준 도출과 강화나들길 탐방로의 실태 평가로 구분된다. 첫째, 도보여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보여행 탐방로의 시설과 운영관리 평가의 틀을 도출한다. 둘째, 도보여행객들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은 탐방로 코스를 선정하고, 현장조사와 도보여행객 인터뷰를 바탕으로 강화 나들길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셋째, 도보여행 활성화를 위한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2. 이론 및 현황 고찰

### 2.1 도보여행의 이론적 고찰

도보여행은 신체활동인 걷기를 통해서 여행지역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활동으로, 트레킹, 하이킹, 백 패킹, 도보순례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제주 올레길<sup>2)</sup>이 도보여행 코스로 알려지게 되면서 도보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탐방로를 조성하였다. 현재, 제주권의 올레길, 지리산권의 둘레길, 수도권의 성곽순례길과 강화 나들길, 충청권의 백제역사도보길과 불교문화체험길, 강원권의 바우길, 전라권의 질마재길과 마실길, 경상권의 대구 올레길이 있다.

도보여행과 관련된 연구는 제주 올레길이 성공하면서

2009년 후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연구주제로는 도보여행의 형태, 도보탐방로의 구성이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전국 도보탐방로의 구성이 완료되면서 도보여행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도보여행의 특성 및 방문동기와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도보여행은 중년 이상의 연령층과 고학력,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참여가 두드러지며 동반여행객과 함께 여행하고 소규모집단과 함께 참여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ng & Jung, 2011). 도보여행의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참여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Lee, 2012). 방문동기와 만족도 연구에서는 자연감상과 일상탈출을 위해 도보여행을 선택하고(Sim et al., 2010; Rho, 2011; Na & Lee, 2012), 도보여행의 동기 중 자연추구, 문화학습, 일상탈출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Sim et al., 2010). 도보여행은 국내외 여행, 도시여행, 농어촌여행과 달리 자연감상과 일상탈출 요소가 강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sup>3)</sup>(Kim & In, 2014).

둘째, 관광공간과 탐방로의 특성을 살펴보고, 도보탐방로의 구성요소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 유명 관광지를 따라 도보여행 코스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으며 도보여행 코스와 연계된 마을분위기와 문화매력도를 살려 코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Choi & Lee, 2011; Kim et al., 2012). 탐방코스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탐방로의 시점과 종점, 편의시설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Yoo & Kim, 2009; Choi & Lee, 2011; Kim et al., 2011). 지금까지 선 중심의 탐방로, 점과 선이 결합된 탐방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기존의 탐방로들을 연계시켜 다양한 형태의 도보여행 탐방로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Kim et al., 2010).

셋째, 도보여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 도보여행 코스는 길게 늘어진 선 중심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마을단위의 소규모 자본과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Jeong et al., 2011). 도보여행객들은 탐방로에 있는 편의시설, 휴게시설, 농·특산물 판매장에 방문하고, 탐방로와 연계된 마을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Lim et al. 2013). 지역주민들은 낡은 집들을 수리하여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고, 탐방로 내에 생수,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판매하는 상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Park, 2012). 한편, 도보여행 코스 개발은 인근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토지가격상승률이 0.03%로 미미한 수치이지만 낙후지역의

2) 제주 올레는 2007년 시흥에서 광치기 해변까지 1코스가 개장된 이래, 제주의 해안선을 중심으로 현재 25개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제주 올레는 2007년에 처음 개장 시 도보여행 탐방객이 3천명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 60여만 명으로 탐방객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3년 제주도 여행객 천만 명 달성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Lee & Jung, 2014).

3) 국내외 여행, 도시여행, 농어촌여행 관련 선행연구에서 관광객들은 관광지, 관광시설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 Lee, 2011; Oh & Oh, 2011; Kim & Oh, 2012).

지가 상승은 지역개발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았다(Lee & Jung, 2014).

지금까지 도보여행과 관련한 연구는 탐방자원을 중심으로 도보탐방로를 조성하고, 도보여행객의 이용 만족도를 높여 도보여행을 활성화시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도보탐방로가 조성된 현 시점에서 도보탐방로 코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방로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탐방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도보여행객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탐방로에 대한 실태 평가를 하고자 한다.

## 2.2 인천 강화 나들길의 현황 고찰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강화 본도와 석모도, 교동도 등 1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반도 중심부의 서쪽 끝에 있고, 동쪽에는 경기도 김포시, 남쪽에는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해 있다. 강화군에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자연자원으로는 서해안 전체 갯벌면적의 17.4%를 차지하는 강화남단 갯벌, 2008년 탐사르습지에 등록된 매화마을군락지, 화강암의 기암절벽이 있는 마니산이 있다. 문화자원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단군의 제천지 참성단, 몽골항쟁과 강화 천도의 역사를 지닌 고려궁지, 강화산성이 있다(Cho & Hwang, 2009).

강화군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2009년 1,248,568명, 2010년 1,561,074명, 2011년 1,991,890명, 2012년 1,879,122명으로 꾸준히 증가,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광객들은 자연경관 감상, 역사유적지 방문, 휴식 및 휴양을 목적으로 방문하고, 재방문율과 재방문 의향 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Ganghwa-gun, 2010)<sup>4)</sup>. 강화군은 우수하고 풍부한 자연경관과 선사시대에서 근현대까지의 역사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휴양 및 숙박시설, 대중교통시설, 체험시설이 취약하다고 조사되어 관광기반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

강화군은 2008년 문화관광부의 '이야기가 있는 생태문화탐방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탐방로를 걸으면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관광할 수 있는 강화 나들길을 조성하였다. 강화 나들길은 2009년 4개 코스를 시작으로 현재 20개 코스가 조성되어 있고, 선사시대의 고인돌, 고려시대의 왕릉과 건축물, 조선시대의 진보와 돈대 등의 문화자원과 세계적인 갯벌과 저어새, 두루미 등 철새가 서식하는 자연자원을 보고 느낄 수 있다<sup>5)</sup>. 지금까지 강화 나들길에 방문여

행객의 수는 2010년 약 200만명, 2011년 약 300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월별 방문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and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12).

## 3.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도보여행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보여행 탐방로의 시설과 운영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틀을 마련하고, 강화 나들길의 탐방로 시설 및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자 한다(Table 1.). 도보여행 탐방로의 평가는 탐방자원과 탐방시설, 탐방로 운영관리로 분류한다. 탐방로는 자연자원,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탐방로가 구성되었고 탐방로 시설, 탐방안내시설, 탐방연계시설인 탐방시설이 있으며 탐방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

먼저, 탐방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2009)의 문화생태탐방로의 유형을 바탕으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으로 구분한다. 자연자원은 자연생태자원과 자연경관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생태자원은 동·식물, 해양자원, 산악과 평지자원 등 자연적인 가치를 지니는 생물 또는 비생물적인 요소가 포함되고, 자연경관자원은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 철새도래지 등 자연적 측면에서 시각적 가치를 지니는 지역, 지형 또는 이에 부속된 요소가 포함된다. 문화자원은 역사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으로 구분된다. 역사문화자원은 유적지, 명승지, 전설, 풍습 등 역사적 유래와 특징을 지니는 문화자원이고, 예술문화자원은 문학, 미술, 공연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소재 또는 배경으로 활용되는 문화자원이 포함된다. 생활문화자원은 지역의 문화 또는 생활 속에서 제공되는 문화자원이 속한다.

둘째, 탐방시설은 임창수 외 4인(2013)의 도보여행길 유형을 바탕으로 탐방로 시설, 탐방안내시설, 탐방연계시설로 구분한다. 탐방로 시설은 탐방로 코스, 탐방로 네트워크로 분류한다. 탐방로 코스는 탐방로의 노선, 소요시간과 거리, 탐방로의 형태 및 안전성이 포함되고 탐방로 네트워크는 탐방로 내 연결성과 탐방로간 연결성을 평가한다. 탐방안내 시설에는 해설표지, 이정표지, 관광안내소가 포함된다. 탐방연계시설은 탐방로와 연계된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교통시설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탐방로 운영 및 관리 부문은 탐방로와 관련된 주체인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의 운영 및 관리로 분류하여

4) 강화군 여행객의 목적은 자연·풍경 관광(49.6%), 역사문화유적지 방문(35.6%), 휴식 및 휴양(35.6%)로 조사되었고, 동반관광객은 가족 및 친지(42.9%), 친구 및 연인(27.7%), 직장동료(18.3%) 순으로 나타났다. 강화군 재방문율은 54.3%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재방문 의향율은 74.5%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Ganghwa-gun, 2010).

5) 강화 나들길은 심도역사문화길, 호국돈대길, 능묘가는길, 해가지는 마을길, 고비고개길, 화남생가 가는 길, 갯벌 보러 가는 길, 동막해변 가는 길, 철새보러 가는 길, 교동도 다음세길, 머르메 가는 길, 바람길(보문사 가는 길), 주문도길, 불음도 길, 강화도령 첫사랑길, 고려궁 성곽길, 서해황금들녘길, 고인돌 탐방길, 왕골공예마을 가는 길, 석모도 상주해안길로, 현재 총 20개 코스가 있다. 나들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강화 나들길은 강화의 역사자원, 자연경관, 생활문화가 어우러진 생태문화탐방로이고, 나들길이라는 의미는 나를 낮추고 들어서는 길을 의미한다.

**Table 1.** Framework of analysis

Major Classification	Medium Classification	Sub-Classification
Visit Resources	Natural Resources	Natural Eco-Resources
		Natural Landscape Resources
	Cultural Resources	Historical&Cultural Resources
		Art & Culture Resources
		Living Culture Resources
Visit Facilities	Trail Facilities	Trail Course
		Trail Network
	Visit Guide Facilities	Guide Sign
		Guide Information
	Visit-connected Facilities	Amenities
		Lodging Facilities
		Traffic Facilities
Trail Operation&Management	Village-led Operation	
	Public Agency-led Management	

Footnote 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9) Projects for cultural ecology trail.

b. Lim et al. (2013)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rural village related with the trail.

평가한다. 지역주민 운영 부문에서는 탐방로 코스와 연계한 마을과 지역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운영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관리 부문에서는 탐방로와 탐방자원의 관리, 탐방로의 마케팅 및 홍보를 평가한다.

#### 4. 분석 결과

강화군 곳곳에는 우수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고, 이러한 자원을 중심으로 강화 나들길이 조성되어 있다. 강화 나들길은 자연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중심형 탐방로와 지역의 문화·역사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중심형 탐방로가 있는 혼합형 탐방로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화 나들길 관계자와 이용객의 인터뷰를 통해 이용 만족도가 높은 탐방로 코스를 선정하고, 강화 나들길에 대한 현장답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탐방자원, 탐방시설, 탐방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 평가하고자 한다.

##### 4.1 자연중심형 탐방로

강화 나들길의 대표적인 자연중심형 탐방로는 7코스의 갯벌 보러 가는 길과 8코스의 철새 보러 가는 길이다. 7코스과 8코스는 강화군 남단의 화도면과 길상면에 위치해있으며 강화 갯벌과 철새 서식지가 있고 낙조가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다.

7코스의 갯벌 보러 가는 길은 강화 갯벌과 저어새, 낙조를 볼 수 있는 코스로, 화도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갯벌센터를 경유하고 화도공영주차장으로 순환한다. 내리고개와 일만보길은 낮은 고개를 오르는 구간으로 후포항과 석모도의 경관을 볼 수 있고, 기존의 산길을 이용하여 자연생태자원의 훼손을 최소화시켰다. 장화리 일몰조망지에서 낙

조테마공원 전망대와 갯벌센터까지의 구간은 제방을 따라 걸을 수 있어 강화 갯벌과 해안경관을 볼 수 있고, 강화 갯벌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철새를 관찰할 수 있다<sup>6)</sup>. 강화갯벌센터에서 화도공영주차장까지 구간은 기존 마을 안길을 이용하여 도보여행을 할 수 있게 탐방로를 조성하였다. 화도공영주차장에서 강화 갯벌센터까지의 구간은 7코스 갯벌 보러 가는 길과 7-1코스 동막해변 가는 길의 중복되어진 코스이고, 7코스의 갯벌 보러 가는 길은 강화 남단의 해안경관을 따라 7-1코스의 동막해변 가는 길과 8코스의 철새 보러 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다.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은 화도공영주차장으로, 강화도 남부와 수도권 서부를 잇는 초지대교와 서울과 김포에서 오고 가는 버스가 있어 교통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편의시설은 초·중반 구간인 일몰조망지, 낙조테마공원 전망대, 갯벌센터에 있고, 탐방로 시간과 거리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장화리와 여차리 마을 주민들은 1차 산업인 농업과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업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마을 곳곳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이 자리를 잡고 있다.

8코스의 철새 보러 가는 길은 겨울 철새도래지와 강화 남쪽 해안경관을 볼 수 있는 코스로, 초지진에서 출발하여 황산도선착장과 선두어시장을 지나 분오리돈대까지 해안을 따라 조성되어있다<sup>7)</sup>. 초지진에서 황산도 구간은 어시장과

6) 7코스 갯벌 보러 가는 길은 자연생태적 가치와 자연경관적 가치를 지닌 탐방로이다. 자연생태자원으로는 강화 갯벌과 겨울 철새 저어새가 있고 자연경관자원으로는 상봉산책로, 장화리 일몰조망지, 낙조전망대, 갯벌센터가 있다.

7) 8코스 철새 보러 가는 길은 해안경관이 아름다운 코스로 우수한 자연자원들을 지니고 있다. 자연생태자원으로는 동검도 입구의 칠면초와 채두루미, 저어새가 있고 자연경관자원으로는 황산도, 선두리 해안경관마을, 분오리 선착장이 있다. 헤든뮤지엄, 소리체험박물관, 자연체험장 등 탐방로와 연계하여 문화자원이 있다.

낚시터가 있고 자연자원을 보전시키기 위해 갯벌 위에 해안데크를 설치하였다. 섬암교에서 동검도 입구 구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미술관과 박물관, 체험장이 있어 여행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강화 나들길과 연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후애돈대에서 분오리돈대까지 구간은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볼 수 있는 조망 시설이 있다.

철새 보러 가는 길은 해안을 따라 제방과 해안데크로 탐방로 길이 조성되어 있어 날씨, 기후, 태풍 등 자연재해에 유의해야 한다. 8코스 도착지점인 분오리 돈대에서부터는 7코스 갯벌 보러 가는 길과 7-1코스 동막해변 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다. 편의시설은 초지진, 황산도, 선두리 어판장, 분오리 어판장에 위치해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게 조형물과 탐방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도보여행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7코스의 갯벌 보러 가는 길과 8코스의 철새 보러 가는 길은 해안을 따라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고, 강화 갯벌과 해양생물, 겨울 철새를 볼 수 있는 자연중심형 탐방로이다. 탐방로와 연계된 마을은 숙박시설이 있고, 8코스는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체험농장과 박물관, 어판장이 있다. 그러나 7코스의 강화갯벌센터에서 화도공영주차장 구간은 농촌마을 안길과 연계된 탐방로이지만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부족한 편으로 마을의 탐방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탐방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Nature-oriented trail of Table 2.).

## 4.2 문화중심형 탐방로

강화 나들길의 대표적인 문화중심형 탐방로는 1코스의 심도역사문화길과 15코스의 고려궁 성곽길이 있다. 1코스의 심도역사문화길은 강화읍에 있는 주요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코스이고, 15코스의 고려궁 성곽길은 고려궁 성곽과 강화산성을 돌아보는 코스이다. 1코스의 심도역사문화길과 15코스의 고려궁 성곽길은 강화군의 중심지인 강화읍에 위치해있으며 행정, 업무,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전적지가 산재해있는 곳이다.

1코스의 심도역사문화길은 천년을 넘나드는 시간여행의 길로 불리며 강화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갑곶돈대까지의 거리는 17.2km로, 5시간 40분이 소요된다. 강화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강화산성 동문, 성공회성당, 용흥궁, 고려궁지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볼 수 있으며 강화산성 북문을 지나 북장대에서는 강화읍의 마을경관을 볼 수 있고, 연미정에서 갑곶돈대까지는 옥개방죽길을 따라 해안산책이 가능하다<sup>8)</sup>.

8) 1코스 심도역사문화길은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고, 특히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역사문화자원은 강화산성 동문, 성공회성당, 용흥궁, 강화고려궁지, 강화향교, 강화산성 북문, 오읍약수, 연미정, 갑곶성지, 갑곶돈대가 있고, 생활문화자원은 강화풍물시장, 강화인삼센터, 고려인삼센터가 있다.

출발지점은 강화시외버스터미널이고 도착지점은 갑곶돈대로, 강화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발지점인 강화시외버스터미널과 도착지점인 갑곶돈대의 정류장에서 시외버스를 탈 수 있어 교통접근성이 매우 높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사문화자원이 있어 화장실과 휴식시설, 매점 및 식당이 탐방로 곳곳에 위치해있다.

탐방로는 마을안길과 자연 길을 이용하여 자연과 문화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탐방로를 조성하였다. 초반 구간은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해있고 강화 거주민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으로, 기존의 마을안길을 이용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아스팔트길로 조성되어 있다. 중반 구간은 강화향교에서 북장대까지 성곽을 따라 올라가는 산길로, 자연과 문화를 그대로 보전하였고 흙길로 조성되어 있다. 연미정에서 갑곶돈대로 이어지는 길은 제방길과 해안도로를 이용하였고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이 있어 안전하게 도보여행을 할 수 있다.

15코스의 고려궁 성곽길은 강화산성을 돌아보는 코스이고 강화산성 남문에서 강화산성 동문까지의 거리는 11km로 4시간이 소요된다. 강화산성 남문에서 남장대까지, 강화산성 서문에서 북장대까지는 성곽을 따라 산을 오르는 코스로, 강화읍의 남쪽과 북쪽 경관을 볼 수 있다. 국화저수지에서 강화산성 서문까지는 생태문화로로 조성되어 있고, 고려궁지에서 강화산성 동문까지는 고려궁지, 용흥궁, 성공회성당이 있어 역사문화자원을 둘러볼 수 있다<sup>9)</sup>.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은 강화산성 남문과 동문으로, 강화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과의 교통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화장실과 휴식시설이 곳곳에 위치해 있고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크고 작은 식당과 매점이 있다. 강화산성 성곽과 마을 안길을 따라 도보여행을 할 수 있으며 남산과 북산을 오르는 코스 외에는 평탄한 길로 조성되어 있다.

1코스의 심도역사문화길과 15코스의 고려궁 성곽길은 강화읍의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다. 강화읍에는 다수의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화 중앙시장, 강화 풍물시장과 강화 인삼센터, 강화읍 동문의 드라마 촬영지 등 생활문화자원이 존재하고 있다.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자원과 탐방로 코스를 연계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강화산성 동문에서 용흥궁공원까지, 강화향교에서 북장대까지의 탐방로 구간은 1코스, 5코스, 14코스, 15코스가 연결되어 있다. 강화 나들길 코스의 주요 지점에 해설표지와 방향표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도보여행객들은 코스의 분리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스의 분리지점에 탐방안내시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Culture-oriented trail of Table 2.).

9) 15코스 고려궁 성곽길은 강화산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중심형 탐방로이다. 역사문화자원으로는 강화산성, 고려궁지, 용흥궁, 성공회성당이 있다.

**Table 4.** Result of Ganghwa Nadeul-gil

Major Classification	Medium Classification	Sub-Classification	Nature-oriented trail		Culture-oriented trail	
			7 Corse	8 Corse	1 Corse	15 Corse
Visit Resources	Natural Resources	Natural Eco-Resources	●	●	-	-
		Natural Landscape Resources	●	●	●	●
	Cultural Resources	Historical&Cultural Resources	-	-	●	●
		Art & Culture Resources	○	●	●	○
		Living Culture Resources	○	●	●	○
Visit Facilities	Trail Facilities	Trail Course	●	●	●	●
		Trail Network	○	●	●	●
	Visit Guide Facilities	Guide Sign	●	●	●	●
		Guide Information	●	●	●	●
	Visit-connected Facilities	Amenities	○	●	●	●
		Lodging Facilities	●	●	○	○
		Traffic Facilities	●	●	●	●
Trail Operation& Management	Village-led Operation		●	●	○	○
	Public Agency-led Management		●	●	●	●

Footnote. ● (Aptitude), ● (Usually), ○ (Shortage)

###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도보여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보여행 탐방로의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도출하였고, 강화 나들길의 자연중심형 탐방로와 문화중심형 탐방로의 특성과 탐방로 시설 및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였다.

도보여행 이용객의 특성, 탐방로의 구성요소와 탐방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도보여행 탐방로의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다. 도보여행 탐방로는 탐방자원, 탐방시설, 탐방로 운영 및 관리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탐방자원은 탐방로 코스의 중점을 둔 자원을 토대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으로 분류하였고, 탐방시설은 탐방로 시설, 탐방안내시설, 탐방연계시설로 탐방로 코스에 있는 주요 시설들이 포함된다. 탐방로 운영 및 관리는 탐방로와 관련된 주체의 운영 및 관리로 분류하였다.

도보여행 탐방로의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강화 나들길의 탐방로 시설 및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였다. 강화 나들길 관계자와 이용객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용 만족도가 높은 코스를 선정하였고, 자연중심형 탐방로와 문화중심형 탐방로로 분류하여 강화 나들길의 탐방로 실태를 평가하였다. 자연중심형 탐방로 코스로는 7코스의 갯벌 보러 가는 길과 8코스의 철새 보러 가는 길로 선정하였으며 강화 남단의 해안경관을 따라 탐방로가 구성되어 있고 강화 갯벌과 해양생물, 겨울 철새를 볼 수 있다. 탐방로 코스와 근접한 마을 곳곳에 숙박시설이 위치해있으며 마을의 지역 주민들은 3차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코스 철새 보러 가는 길 주변에는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체험농장, 박물관, 어판장이 있

어 주민주도적으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중심형 탐방로로는 1코스의 심도역사문화길과 15코스의 고려궁 성곽길로 선정하였으며 강화읍의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탐방로 코스가 구성되어 있고, 기존의 길을 이용하여 자연과 문화의 훼손을 최소화시켰다. 1코스와 15코스는 화장실과 휴식시설, 식당과 매점 등 편의시설이 곳곳에 있고,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강화군청 주변에 상점과 중앙시장 등 생활문화자원도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상점들은 문을 닫은 상태로, 경제적 재생 방안을 마련하는게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강화 나들길의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탐방로와 연계된 마을의 생활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강화 나들길은 자연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탐방로 코스가 구성되어 있다. 마을의 생활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보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7코스의 강화갯벌센터에서 화도공영주차장 구간은 농촌마을의 경관 외에는 볼거리가 없어 도보여행객들의 이용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차리와 내리 마을의 생활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생활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강화 나들길 탐방로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쇠퇴시설을 활용한 경제적 재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화읍은 행정, 업무,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강화군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며 유서 깊은 역사문화자원을 관광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다. 그러나 강화 중앙시장과 강화군청 주변의 상점은 대부분 상점 문을 닫아 여행객들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홍물로 변해가고 있다. 강화읍에 있는 식취한 상점과 시장을 경제적 소비와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 재생활 필요가 있다.

셋째, 탐방로와 연계된 마을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강화 나들길의 도보시간은 최소 4시간에서 최대 7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문화중심형 탐방로는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는 관광지가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지만, 자연중심형 탐방로는 화장실, 음수대, 매점, 쉼터 등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탐방로와 연계된 마을의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마을회관, 슈퍼마켓의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하고, 새로운 조형물과 쉼터의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여 여행객들의 쉼터로 재조성해야 한다.

넷째, 머물 수 있는 도보여행 탐방로 코스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강화군은 수도권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여행객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낮과 밤, 오랜 시간을 머물 수 있는 도보여행 탐방로 코스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7코스는 낙조가 아름다운 코스이지만 도보여행을 통해 오랜 시간을 머물기에는 탐방로 코스 내 네트워크가 긴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오전에 마니산을 등반하고 낮에는 주변 마을에서 농촌마을 체험과 갯벌센터에서 해양생물을 관찰한 후 밤 시간대에는 장화리 낙조마을에서 일몰을 조망하고 숙박을 하도록 탐방로 코스를 재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탐방로의 현장답사와 강화 나들길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강화 나들길 20코스 중 이용 만족도가 높은 4개의 코스에 대한 도보여행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였다. 향후, 도보 탐방로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자료를 통해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 실태 평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사 사

이 논문은 2014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경기씨그랜트사업).

## References

- Baek, JB and Kim, DP (2013). Visitors' behavior and satisfaction determinants of national park: in the case of Gyeongju national park, *J.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9(4), pp. 105-113. [Korean Literature]
- Byun, BS and Shin, SM (2011). The importance analysis of experts on eco-cultural regeneration index in island regions, *J. of wetlands research*, 13(3), pp. 687-696. [Korean Literature]
- Chang, WS and Jung, NS (2014). An analysis of diversity and specialization of rural amenity resources: Case by Chungcheongnam-do province, *J.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0(3), pp. 33-43. [Korean Literature]
- Cho, HJ and Hwang, HJ (2009).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lowcity to Incheon : focusing on the Gangwha area*, IDI 2009-24,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Korean Literature]
- Choi, BK and Lee, YK (2011). An influence on tourist satisfaction of walking tour destination image and perceived value: focused on Jeju Olle and Jirisan Dulle, *J. of Tourism Sciences*, 35(7), pp. 299-321. [Korean Literature]
- Ganghwa-gun, 2010 *Ganghwa-gun Tourism Master Plan*. [Korean Literature]
- Jeong, C, Park, TY and Roh, KG (201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eju Olle tourists' motivation and pre-visit image, *J. of Tourism Sciences*, 34(4), pp. 13-33. [Korean Literature]
- Jeong, CJ, Jeong, RS and Lee, H (2011). Forecasting demand and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walk tourists: focused on Jeju Olle, *J. of tourism sciences*, 35(8), pp. 389-408. [Korean Literature]
- Kang, MH and Jung, H (2011). Identification of trekkers' characteristics: focusing on Jirisan-round trail users, *Jour. Korean For. Soc.*, 100(3), pp. 382-391. [Korean Literature]
- Kim, SL and In ON (2014). Effect of walking tour experience on tourist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J.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9(5), pp. 99-107. [Korean Literature]
- Kim, EJ, Lee YK, Lim, CS, Choi, JA, Kim, SB and Park, MJ (2014). A study on planning trails of natural and historic-cultural landscapes in rural villages, *J.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0(2), pp. 159-171. [Korean Literature]
- Kim, JY, Han, YH and Oh, SM (2011). A case study on the space of walking tour : focused on Jongno 20 course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the Spatial Design*, 6(4), pp. 49-56. [Korean Literature]
- Kim, SB, Choi, JU, Jeong, DY and Kim EJ (2010). Theme Trail District Planning for the Regional Activation: Case study on project of Trail construction each of the government agencies, *J.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7(3), pp. 587-606. [Korean Literature]
- Kim, SH and Oh, HJ (2012). The influence of each tourism destination on total satisfaction of the tourism destination according to the tour behavior: focused on tourist sample in Busan, *Tourism & Leisure research*, 24(8), pp. 5-21. [Korean Literature]
- Kwon, EJ, Kwon, YH and Park, JK (2012). A comparison study of walking tourists' selection attributes at national park using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 of tourism*

- sciences*, 33(6), pp. 75-92. [Korean Literature]
- Kwon, JO and Lee, HY (2011). Exploring effects of the pattern of travel companion on a difference in expectation,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to tourism destination: for Nami island, *Korean J. of Hotel Administration*, 20(6), pp. 167-188. [Korean Literature]
- Lee, DW and Jung, SY (2014). Research into the effect of Jeju Olle trails on nearby land prices using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Korean appraisal review*, 24(1), pp. 63-76. [Korean Literature]
- Lee, JH (2012). A study on subjective well-being of walking tourist: Focusing on the Jeju Olle trail, Kyonggi University Masters thesis, Korea: Kyonggi University. [Korean Literature]
- Lim, CS, Hong, KW, Ki, EJ, Kim, HR and Choi, JA (2013).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rural village related with the trail: focused on the analysis of field investigation on the rural villages are located near the Jeju Olle trail, *J.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9(1), pp. 91-107. [Korean Literature]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9). *Projects for cultural ecology trail*. [Korean Literature]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Impact of walking tour*. [Korean Literature]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Walking tourism route: The need for systematic management*, Hot issue brief, 88. [Korean Literature]
- Na, HH and Lee, JH (2012). Relationships between the use behavior, motivation,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of slow tourism tourists: with focus on Daegu Ole Palgong Mountain courses, *Jour. Korean For. Soc.*, 101(4), pp. 663-676. [Korean Literature]
- Oh, HJ and Oh, HC (2011). The study o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attractive attributes in Busan tourism, *Tourism & Leisure research*, 23(8), pp. 41-59. [Korean Literature]
- Park, YA (2012). An study of the impact of the residents' perception toward walking-tour course development on Jeju Olle development support: a focus a moderating effect of attachment, *J. of tourism sciences*, 36(2), pp. 159-178. [Korean Literature]
-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and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12). Ganghwa nadeulgil, *2012 Best practices i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pp. 24-35. [Korean Literature]
- Roh, KG (2011). A study on market segmentation by the route-based tourism motivation: focused on Jeju Olle tourist's,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7(2), pp. 131-146. [Korean Literature]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 *Research for attractiveness and image of local brand*,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n Literature]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 *Rural amenity resources surve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n Literature]
- Shin, SM and Byun, BS (2012). The eco-cultural regeneration method of deteriorated facilities in island regions: focused on Ongjin-gun Ijak-do, Incheon metropolis, *J. of wetlands research*, 14(4), pp.675-685. [Korean Literature]
- Sim, KW, Lee, JH and Na, HH (2010). A study on effect relationships among visitor motivation,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in Palgong Olleh, *The J. of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14(3), pp. 21-28. [Korean Literature]
- Yoo, KM and Kim, NJ (2009).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strategies using space syntax: a case of Yooyang-dong, Yangju City, *J. of tourism sciences*, 33(6), pp. 75-92. [Korean Literature]